

“人間尊重 人間中心으로의 선회를...”

-2000年代 韓國體育의 새로운 方向設定



鄭 淳 徹
〈世宗大 體育學科 교수〉

이 글은 지난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韓國體育學會와 올림픽학술대회 조직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하계학술발표회 및 국제스포츠심리학심포지움」에서 발표된 것이다. (편집자 註)

實存主義 哲學者 Martin Buber는 그의名著 “Between Man and Man(1947)”에서 인간은 이미 自己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당했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하자면 급속도로 발달된 機械文明으로 인간의 생활이 편리해 졌지만 인간의 고유한 영역을 기계가 대신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인간은 고독과 소외감으로 번민하고 있다는 뜻이다.

현재 우리나라 體育에서도 급격히 발전된 體育科學의 영향으로 눈부신 競技力 향상을 이룩했다. 인간의 신체적 한계점을 넘어서 신기록을 수립하고, 神技에 가까운 드라마를 연출하여 초인적인 능력을 과시 하였다. 그러나 體育의 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인간을 실험의 대상으로 취급하거나 非人間的인 약물을 복용시키는 등의 처사가 자행되었음은 現代體育의 문제점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처사는 모두 인간의 본분을 망각한데서 시작하여 인간 스스로 자신을 體育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데서 비롯되었다.

체육은 인간의 순수한 욕망에서 시작된 것이

다. Sports에서도 단순히 「겨루기」, 「내기」 또는 「美的 表現」등의 영역을 벗어나 기계를 이용해 인간의 약점을 억지로 보완하려 하고 있거나 약물을 복용하여 기록을 갱신하려 하며, 심리적 최면등으로 인간한계를 극복하려는데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따지고 보면 현재의 體育이 지나친 승부예의 집착과 黃金萬能主義, Star Player와 Elite Sports 最優先主義에서 비롯되었으며, 더구나 현재 全世界에 몰아치고 있는 Sportsnationalism의 강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86 Asian Game」과 「88 Seoul Olympic」을 치뤄야하는 유사 이래 가장 특기할만한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이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위의 양대회를 효과적으로 치루었을 경우 한국의 세계적 지위의 향상은 물론 국가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리라는 것은 대다수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그러나 한국의 體育은 「88 Olympic」이 끝난적

후가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까지의 체육은「88 Olympic」을 성공적으로 치루는데 최우선 순위가 부여 되었기 때문이며, 앞으로는 국민을 위한 진정한 의미의 體育이 실시 되어야만 세계속의 先進體育國家로 발돋움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本研究者는 2000년대 韓國體育의 새로운 方向을 아래와 같이 提示하여 올바른 體育의 座標를 設定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家庭體育

유아기나 미취학 어린이의 가정에서의 早期體育이 부모의 지나친 욕망때문에 어린이의 정상적인 발육과 발달에 저해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의 체육활동은 어린이의 신체와 정신의 調和的 發達은 물론 情緒的 함양에도 크게 영향을 끼치므로 成人中心의 심한 운동이나 고통이 따르는 훈련등은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염려가 있다. 그러므로 단순한 「놀이」를 통해서 身體運動에 흥미를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가장 基礎的인 game을 통하여 「나」아닌 상대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모든 것이 내똥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함께 깨닫도록 지도한다. 스스로 규칙을 지키도록 하며, 자기 자신이 행한 것은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한다. 이때의 가장 중요한 것은 身體的 運動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며, 올바른 동작을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린이로 하여금 너무 벅찬 운동을 하도록 하는 것은 성장에 해로우며, 지나친 기술과 어려운 기교를 요구하는 것은 부상의 위험뿐만 아니라 운동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家庭體育은 부모나 형제들의 올바른 몸가짐이 바로 본보기가 되며, 즐겁고 유쾌한 생활그 자체가 건전한 가정체육이기 때문에 주위 환경이나 성인들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것이다.

家庭은 인간활동의 처음이며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

서 소비하게 된다. 그러므로 엄밀히 따지고 보면 平生동안 가정에서의 체육활동이 필요하다.

○ 幼兒期의 家庭體育

출생해서부터 4~5세까지의 男·女 모두를 말하며, 좀더 상세하게 구분하자면 新生兒(생후 약 2주간), 幼兒前期(2세경까지), 幼兒中期(3~4세), 幼兒後期(4~5세)로 나눈다.

인간의 교육은 어머니 배속에서 있을 때부터 해야 한다고 하여 胎敎를 중시했지만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교육은 시작된다.

인간의 생애를 통하여 처음이며 출발점인 유아기의 교육은 그 대부분이 신체활동을 중심으로 한 몸으로 익히는 과정의 연속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이나 표현을 못한다 하여 유아기의 생활이 거의 신체적인 것에만 치우치는 것으로 판단하는 예가 있으나 그와는 달리 유아기의 정신적·심리적 발달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정신분석학의 대가인 프로이트나 생리학자인 김블 영 등은 인간의 성격의 기초가 5세 전후에 이미 완성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유아기의 체육은 놀이를 중심으로 아동 스스로가 흥미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특히 地上運動뿐 아니라 水上運動도 바로 이때가 適期라는 것이다. 幼兒後期에는 물에 대한 새로운 느낌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기 때문에 좀더 체계적인 水泳訓練도 효과가 있다.

그외에 간단한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여 효과를 내도록 하는 應用動作에도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아동의 知能도 4세에 이미 어른들의 50%, 5세에는 60%에 이른다는 것을 염두에두고 너무 어린아이 취급하는 것은 오히려 유아기의 성장발육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기 쉬운 것이다.

특히 이때의 아동을 위해서는 생활환경 조건에 신경을 써야한다.

체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초적인 규칙을 지키도록 습관화 한다든지, 자기맡은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습관을 익히도록 하는 것



은 대단히 중요하며 아동의 심성을 기르는데 필요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兒童期の 家庭教育

6~12세까지이며 國民學校 時期이다. 이때의 아동기에도 학교에서의 규칙적인 생활과 家庭에서의 자유로운 활동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아동의 심성형성과 신체적 발육·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때의 체육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시할 점은 협동, 희생, 봉사, 노력, 규칙준수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 자질을 기르는데 주력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때의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에나 부딪쳐보고 싶은 제일단계의 심리적·신체적 충동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青年期の 家庭体育

中學校 時期로 思春期가 바로 이에 해당되며 아동의 심신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왕성한 신체활동에서 비롯된 탐험심과 모험심이 절정에 이르며 무엇에라도 도전하여 정복해 보려는 강렬한 투쟁심과 성취욕에 불타기 때문에 청년기의 자녀들을 무리하게 가정에 속박하려는 태도는 바람직 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이때의 가정체육은 이웃이나 친척들끼리, 가족과 가족끼리의 合同行事를 통하여 이웃과 친지라는 共同体意識을 심어주고 동료의식을 길러 주는 체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가족단위의 合同行事를 통한 인격형성을 위해서는 이들 청년기에 해당하는 아동들로 하여

금 마음껏 뛰놀 수 있게 하여 남아도는 에너지를 건전하게 발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열심히 땀흘리는 청년들에게는 다른 잡념이 파고들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때의 体育種目으로는 수영·등산·들놀이·여행·낚시·가족오락회 등이 이상적이다.

○成人期の 家庭体育

여자는 20세, 남자는 22~23세 전후로서 大學時節에 해당된다. 이때의 가정체육은 개인의 취미를 살리며, 적성에 맞는 종목과 가족끼리의 즐거움을 함께 느낄만한 專門種目이 적격이다. 특히 볼링, 테니스, 자전거, 하이킹, 스키 등의 운동이 이상적이다

왜냐하면 成人期の 가정체육의 그 주요부분이 신체적인 건강을 위한 것도 있지만, 사교적인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기 때문이다.

이때의 체육에서 더욱 강조되는 점은 人格完成이기 때문에 패어 플레이 정신을 기르기 위해서 팀 플레이를 통한 협동정신, 동료의식, 공동체 의식의 함양이 요망된다. 그래서 야영훈련에서의 공동취사, 해변에서의 해양훈련을 가장 적절한 종목으로 꼽을 수 있다.

물론 이때의 가정체육도 家長을 중심으로 한 가족단위의 협동활동이 가장 이상적이다.

다시 말하자면 家庭体育은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동안 해야 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특성에 맞는 종목으로 생활화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하겠다.

◇學校体育

○体育에 대한 올바른 概念을 심어 주어야 한다

학생으로 하여금 体育의 定義, 体育의 内容, 目標, 効果등을 올바르게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체육은 인간중심이며, 인간을 위한 활동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 Starplayer들의 화려한 個人技만이 체육이고,

일반사람들이 즐겁게 하는 Ball Game은 체육이 아니라 그릇된 개념을 올바르게 잡아준다. 왜 인간이 체육을 하는가. 왜 인간들은 땀을 흘리는가에 대해서 인간활동의 원리와 속성을 알려준다.

○學生的 自律性을 최대로 보장한다

우리나라 체육의 歷史에서 일제 식민지 시대의 특성이 많이 남아있음을 본다. 절도있는 규율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체육이 마치 軍事訓練처럼 눈동자도 못굴리며, 손끝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음을 인정한다. 그래서 체육은 敎師의 호각에 맞춰 일사분란하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시행되어왔다. 그러나 앞으로의 學校體育은 학생 스스로 움직이며, 그들의 행동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까지 지는 자율성에 최대의 역점을 두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民主市民으로서의 自律的 行動에 숙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學生的 創意力과 個性을 존중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체육이 안고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획일성이었다. 전국의 어디를 가나 똑같은 방식으로 개성이나 특성은 완전히 무시된 채 지루한 체육이 실시되었다. 학생은 풍부한 사고력에 의해서 기회만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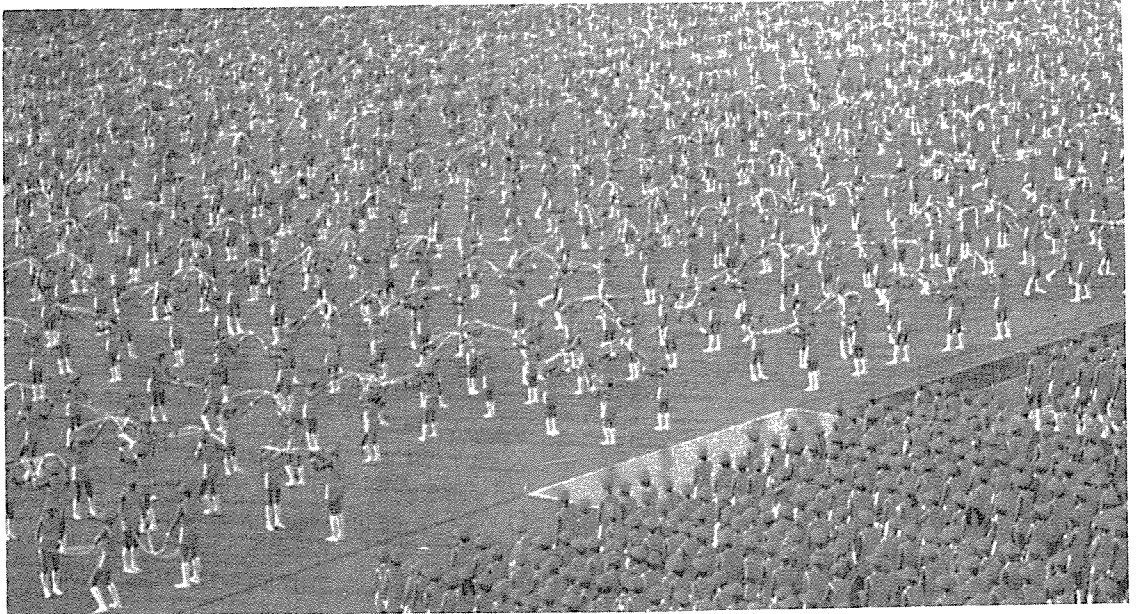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 더구나 학생은 모두가 서로 다른 개인차를 갖고 있으므로 개인의 취향이나 장점이 존중되는 체육이 보장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무한한 잠재능력을 갖고 있으므로 그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체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준법정신을 기르도록 한다

이제까지 체육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라도 승리하는 것을 최선으로 여겨왔으며 심지어 규칙을 어겨서 또는 남을 해치는 방법을 사용하면서까지 game에서 이기는 것을 강조해왔다. 규칙을 꺾박 꺾박 지키면서 정정당당히 싸워서 진 사람과 비열한 수단으로 이긴 사람과의 비교에서 참된 승리의 의미와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은 학생체육의 핵심이다.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시절부터 정당한 노력보다 game에서 이기기만을 위한 요령부터 배운다면 체육은 이미 교육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다.

○最善을 다하도록 지도한다

땀흘린 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체험하도록 지도한다. 어떤 경우이든 자기 자신이 갖고있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건실한 태도를 길러야만



한다. 시험에서 자기편이 불리하다고 미리 포기하는 태도는 시정되어야만 한다. 또 자기편이 유리하다고 자만하는 태도 역시 올바른 것이 아니다. 어려운 역경을 당했을 때 最善을 다하는 태도를 길러주어야 한다.

○協同하고 봉사하는 態度를 길러준다

체육의 현장에서 배워야될 가장 중요한 것은 협동과 희생과 봉사의 정신이다. 나 한 사람만의 안일을 생각하면 자기 팀 전체가 손해를 당한다. 바꾸어 말하면 나의 희생으로 우리편 모두에게 영광을 가져오도록 하는 것은 학교체육에서 높이 평가할 요소이며, 특히 이것은 단체 경기를 통해서 체득하기 쉬운 것이다.

○學生들의 그룹이나 서클별 活動을 장려한다

학생들은 취미나 개성이 맞거나 행동 양식과 목표가 비슷한 또래집단의 형성을 이루게 되는바 체육활동도 이러한 집단을 중심으로 전개되도록 지도하면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된다. 특히 자연발생적 집단활동은 Leadership을 기르는데도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對校競技보다 對內競技에 우선한다

현재 學校體育의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지나친 對校競技때문에 극소수의 Star Player 중심의 Elite Sports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0년대 學校體育의 내용은 학생 개인이 존중되는 對內競技가 핵심이 되어야만 올바른 학교체육이 실시될 수 있다.

○指導者와 施設의 補完이 一般學生 中心으로 이뤄져야 한다

현재 學校體育은 선수나 運動中心으로 이루어지고 예산의 대부분도 그쪽으로 쓰여지고 있으나 앞으로는 全體學生의 체육활동에 불편 없도록 지도자와 시설이 補完되어야 한다.

○학교의 Curriculum이나 學校行事制度가 학생의 참여성에 최 우선 하여 개선 되어야 한다

文敎法의 테두리에 억지로 맞추기 위한 형식적인 Curriculum이나 외부에 보이기 위한 학교행사가 지양되고 학생의 참여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學校體育은 靑少年善導의 次元에서 보다 開放的 시책이 必要하다

이제까지의 學校體育은 全國 어디에서나 校內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校內의 시설물을 이용한 체육만으로는 자라나는 학생들의 왕성한 신체적·정신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건전한 지도를 위해서는 우선 학생들이 마음껏 뛰고 즐길 수 있는 활동영역을 마련해주는 것이 급선무이다.

청소년 非行의 원인중에서 상당한 부분이 그들의 넘쳐나는 잉여세력을 발산할 장소와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는 보고가 있다. 다시 말하자면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심신을 마음껏 펼칠 운동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그들을 올바르게 선도하는 첩경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뜻에서 앞으로 학교체육은 교내를 과감히 벗어나서 교외의 산, 강, 바다, 들판의 야영지나 훈련장까지 학교체육의 영역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學校體育은 未來指向의으로 과감히 改善되어야 한다

오늘날 科學은 놀랄만큼 발달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體育科學도 놀라운 경지에까지 이르렀다. 모든 科學은 이제 宇宙의으로 그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학교체육은 아직도 前近代의인 재래식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앞으로의 학교체육은 미래지향적으로 과감히 개선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學校體育에도 科學的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 좀더 획기적인 스포츠종목도 채택되어야 한다. 즉, 행글라이더, 서핑보드, 모터사이클 등 새로운 종목도 과감히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전자게임 같은 첨단과학분야의 도입도 시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혁신적 수용자세만이 체육의 고립과 미아현상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학교체육은 학생들의 현장참여를 통해서 그들이 신체활동의 보

람을 느끼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國民體育

○社會的 制度改善과 입법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에도 사회체육진흥법등이 있어 우리나라 社會體育의 法的인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死文化해버린 느낌이다. 그래서 2000년대에서는 현실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새로운 社會體育關係法の 제정을 촉구한다.

○社會福祉의 次元에서 범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들에게 가장 행복하고 보람된 삶의 터전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명랑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적인 지원과 강력한 체육시책이 필요하다.

○놀이文化, 體育文化의 새로운 定立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노는 것을 不德으로 보아왔기 때문에 숨어서 불건전한 놀이가 자행되었으며 이의 영향으로 인간의 신체활동마저도 잘못 해석하고 위축되어지는 경향이였다. 그러나 건전한 신체활동을 통한 새로운 놀이와 體育文化의 정립은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절실히 요망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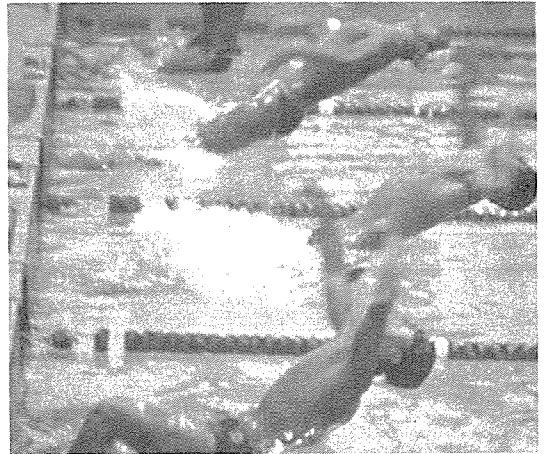
○國民體育Center를 地域特性에 맞도록 建立해야 한다

이제까지 全國民的인 체육활동을 실시함에 있어서 호응을 못받은 이유 가운데는 체육에 관한 인식부족외에도 지역특성이 무시된채 획일적이며 官으로부터 강압적, 지시적이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국민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과 전통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종목과 시행방법 등이 선별되어야만 호응을 얻게될 것으로 판단된다.

○國民體育制度의 實施를 촉구한다

全國民어 움직이는데는 그에 相應하는 동기



가 부여되어야만 한다. 그러한 뜻에서 한국 실정에 맞는 國民體育章制度는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외국의 예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피해야만 한다. 종목, 등급, 대상등의 연구가 필요하다.

○國民體育指導者를 養成해야 한다

현재 體育系列卒業者들 중에서 國民體育指導者로 선발 활용하는 방법과 병행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안, 지역단체, 새마을지도자, 농어촌지도자, 사회단체지도자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되어야 한다.

○國民體育은 바로 國防力이며 生産力임을 認識하자

국민체육은 이나라 모든 국민에게 실시되어 누구나 이에 참여하여 心身의 健康을 얻음은 물론 사회적으로 원만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여, 국방력과 생산력의 원동력임을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

○定期的인 國民體育大會를 國家的 祝祭行事로 發展시켜야 한다

全國民이 모두 참여하여 땀흘리는 國民體育大會가 自律性과 參與性을 바탕으로 定着하게 되도록 발전시킨다면 건전한 사회기풍과 명랑한 분위기 조성은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平生體育의 次元에서 國民體育의 확대실시가 요망된다

인간은 평생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대처하기 위

해서는 인간은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학습해야만 한다.

인간회복을 위해서도 남과 대화가 필요하며, 인간의 자기실현을 위해서도 평생교육은 필요하다. 같은 이유로 인간은 평생체육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직면하게 된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 의도한바 움직일수 있다는 것은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인간의 활동을 저해하는 요소가 여러가지 있는바 이것은 외적, 물리적, 신체적, 내적, 심리적, 정신적 갖가지 요소가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인간의 신체적 활동에 의해서 제거될 수 있으며, 결국 그러기 위해서 인간은 평생 활동해야 한다. 더구나 이러한 평생체육을 지속적이고 능률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흥미도가 높거나 성취도가 높은 종목을 선택해야만 한다. 테니스 등은 男女老少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비용도 알맞은 편이기 때문에 평생체육으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또한 끝없는 장시간 공기좋은 풀밭을 걷는다는 조건이외에도 老年까지 할 수 있다는 장점이 평생체육으로 적합하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폐단이 있다. 그러므로 한국민에 맞는 평생체육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여 많은 국민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이다.

○國民體育의 진흥은 바로 文化民族의 길이다

국민들의 체육에 관한 의식이나 참여도는 바로 그나라 국민의 문화수준을 재는 척도이다.

국민 모두가 뛰고, 달리고, 즐기는 활동일때 그 나라는 건전한 문화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이 그들의 의사대로 활동할 터전이 없을때 사회는 병들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國家에서는 사회의 그늘진 곳이나 부패상을 없애기 위해서도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국민체육의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국민의식이 체육의 필요성, 가치성을 어느만큼 인정하느냐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훌륭한 제도와 시설과 지도자와 프로그램이 준비되었다 해도 국민의

의식이 이에 부합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 結 論

이제까지 한국의 체육은 일제시대의 教練에서 출발하여 갑자기 밀려든 서구 Sports에 휘말려 체육의 참 뜻도 정립되기 전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더구나 급격히 발달하는 물질문명과 순수 Amateurism의 쇠퇴, Sports에서의 Star 주의, 이념전쟁의 부산물로 떠오른 Sportsnationalism의 팽배는 오늘날 체육의 가치관을 흔들기에 충분한 요소들이었다.

더구나 「86 Asian Game」과 「88 Seoul Olympic」이라는 국가적 과업에 직면한 한국의 체육은 Olympism과 국가발전이라는 대명제에 부닥쳐 있다.

그 결과 학교체육이나 國民體育 分野에 관심 쓸 여력이 없다는 것도 명백한 현실이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88 Olympic」을 성공적으로 치뤄서 국가발전에 한발 다가서자는데는 아무런 의의가 없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2000년대 한국의 체육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점이며, 이에 관한 해답과 방향의 제시는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 나라 유사이래 가장 큰 분수령이 될 두 대회를 치루고 난 한국의 체육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은 이제까지의 과도기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하여 즐거움을 느끼면서 삶의 보람을 만끽하는 國民和合과 民族再創造의 場으로 승화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기계에 빼앗겼던 자리, Star Player에게 침식당했던 영역을 「너」와 「나」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진정한 의미의 「體育의 場」이 다시 탈환하게 될 2000년대의 한국체육의 새로운 방향은 「人間尊重」, 「人間中心」으로 짜여져야만 한다.